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1월)

일 시		2021. 1. 21. 목.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부원, 고미아,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이묘숙, 이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2명)		
	회사	송일준 사장,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윤근수 취재부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이선우 기획심의부장(6명)		

▣ 회의 내용

○ 이선우 기획심의부장 : -시청자위원 15명 정원에 12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영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만나 더욱 반갑다.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 구제길, 이정권, 박미자 위원이 불참하셨다. 그동안 송일준 사장님 비롯해 고생하셨다. 회의는 못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상도 많이 받았다는 걸 들었다. 송일준 사장님 오셔서 열심히 해주셨고 광주MBC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비정상적이다. 광주MBC가 방송평가에서 전국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계열사에서 1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통 틀어 1위 한 것은 전무후무하지 않나 싶다. 위원님들 고견을 잘 들어 프로그램을 해왔다. 올해도 <아시안 탑 밴드> 규모를 확대해서 밴드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 강양 선생 다큐 드라마, 마한 다큐도 제작하고, <핑크피쉬> 성과를 바탕으로 양동시장에 레스토랑을 연다. 최근 8부작 <건축의 시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만든 프로그램으로 광주MBC의 큰 성과다. MBC 본사에서 지역 계열사, 자회사 사장 선임을 하고 있다. 이달 28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선임한 명단을 29일에 확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 최영태 위원장 : -업무 보고를 먼저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친애하는 나의 도시>가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제1회 아시안 탑 밴드> 8부작을 방송했고, 2월 8일부터 아시아 각 국에서 방송하기로 했다. 11월 26일부터 <건축의 시간>을 방송해 현재 7부까지 방송했으며, <친애하는 나의 도시>, <양림 이야기, 마을이 온다>, 라디오는 5.18 40주년 5시간 특별생방송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를 방송했다. UHD 다큐 <간양록>을 설 특집으로 편성하고, 역사복원 다큐 <마한>, 백운동 도심 재생사업 영상기록, 양동전통시장 핑크피쉬 레스토랑 오픈 등을 21년 주요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윤근수 취재부장 :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대선 주자 릴레이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호남민심 여론조사를 준비 중이다. 기후 변화와 폭설 한판 관련해 뉴스 생방송을 강화

했고, 동사한 노숙인을 통해 사회복지사각지대를 조명하는 보도를 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발생 1년을 짚어볼 예정이다. 발생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광주 전남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통찰하는 뉴스를 준비 중이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기존 광주MBC에서 운영하던 야구 콘텐츠를 전설의 타이거즈로 개설해서 오픈 했다. 250여 편의 자료를 AI영상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공했다. 프로그램을 소개할 창구가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핑크피쉬>를 IPTV, OTT 웨이브, 네이버 시리즈에 콘텐츠를 공급했다. 주목할만한 콘텐츠로는 이날치 조회수 300만 회, 국악신동 김태연 100만 회를 기록했다. 음악 관련 콘텐츠에 계속 관심이 있다. 21년 주요 계획으로 위메프와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 활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콘텐츠를 다룰 김대중TV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이며, 지역 크리에이터 협업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방송평가에서 지역 지상파 가운데 TV, DMB TV부문 1위를 했다.

○ 최영태 위원장 :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 김형순 위원 : -해양에너지는 4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제공을 해주나?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보유한 아카이브 자료는 판매를 하고 있다.

○ 류한호 위원 : -아날로그 제작물이나 디지털 파일로 남아 있지 않은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했나?

○ 송일준 사장 : -방통위에서 방송사가 갖고있는 아날로그 영상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다. 아쉽게도 저희는 100% 대주주가 있어 대상이 안 된다. 뉴스를 조금씩 디지털화 하고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손을 못 대고 있다.

○ 류한호 위원 :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꽤 있을 것 같다. 지원을 받아 빨리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테잎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콘텐츠로 만들어 놓으면 유통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 의견을 듣겠다. 강부원 위원부터 해달라.

○ 강부원 위원 : -1월 14일 <뉴스데스크> 잇따르는 의료기관 감염, 왜?라는 송정근 기자의 보도에서 의문 제기는 좋았으나, 방역지침 미준수가 원인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쳤다. 방역지침 미준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요양병원은 방역지침 준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원인분석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님의 말씀대로 광주전남지방에만 의료기관 감염이 늘고 있어 그 불안감이 최대치로 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1월 15일에는 우종훈 기자의 “더 이상 못 버틴다” 꼭지에서 유흥업소 내지 헬스장 업주의 어려움이 너무 커져 9시까지의 영업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정보제공이 좋았다. 영업시간이 늘어날 경우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완화가 이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으나, 적어도 업소 주인들이 영업금지 내지 제한으로 피해가 커감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방치되어 그 손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있다는 내용도 국민의 인

식이나 자위권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된다.

○ 김요수 위원 : -1월 12일 청소년 노동 실태 관련 뉴스를 봤다. 최저임금도 안 된 급여를 받거나, 욕설과 폭언,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청소년 노동인권 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뉴스였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을 보여준 보도가 좋았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 성장 과장에도 중요하고, 불이익과 부당함은 되풀이될 수 있다. 향후에는 어떤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없다면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은 있는지, 없다면 도움을 주는 곳을 만드는 정책을 펴도록 해야한다. 1월 19일 뉴스에서는 난개발 상황을 보도했는데 전주, 대전, 순천의 경우를 곁들여서 어떻게 도시를 가꾸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도여서 마음에 쏙 들었다. 건축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우리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보도였다. 보통 단순 사실만 보도하고 그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와 대안을 함께 보도해준 일이 고맙다. 광주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주 건축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류한호 위원 : -아파트 관리비 관련 보도가 몇 차례 나왔다. 아파트 관리비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위탁관리업체가 저지른 관리비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해법을 모색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언론은 이처럼 사소한 듯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바르지 못한 사실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보도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통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관리소장 출신 공무원이 민원 제기자에게 보복성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유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인사의 적절성 문제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좋은 기사였다. 입주자대표의 권한 강화 등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민주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묘숙 위원 : -저녁에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와 아침방송 <뉴스투데이>가 있다. 그런데 뉴스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전날 8시 타임에 진행하는 <뉴스투데이> 내용과 화면은 다음 날 아침 7시 15분경 진행하는 <뉴스데스크>와 동일하다. 각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만 다를 뿐이라서 뉴스라는 새로운 소식의 의미가 약하다. 타 방송사는 아침뉴스에 전날의 뉴스에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곤 한다. 광주MBC의 경우 아침뉴스에는 거의 같은 뉴스가 차례만 바뀌어 나온다. 시청자로서 같은 내용이라면 타 방송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전달되는 뉴스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정보와 발 빠른 뉴스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 최영태 위원장 : -1월 12일 <뉴스데스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시모집 경쟁률 하락”은 뉴스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주제는 단순히 정시모집 경쟁률 하락이라는 범위에 국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드러내는 가장 실질적인 현상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첫째는 학령인구 감소의 결과이고, 둘째는 인서울 현상의 결과이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면 대학 자체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학부모의 교육비 증대, 인구의 유출,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게 된다. 라디오 프로인 <황동현의 시선집중> 혹은 <김낙곤의 시사본색> 등 다른 형태로 심층적 분석을 하고 지역민들이 대학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1월 15일 <뉴스데스크>에서

“아파트 주차장 같이 쓴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광산구 수완동의 사례를 들어 보도했고 광산구가 ‘아파트 주차장 같이 쓰기’ 운동을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지금 광주 시내 주차장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광산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같이 쓰기 운동에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송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김태진 위원 : -홈페이지와 유튜브 업로드 기준으로 새해 들어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두 번의 방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지역민들의 선호도나 여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지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정치인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 당색이 다르거나 지지 정당이 다른 이들의 기준엔 섭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향후 프로그램의 섭외 계획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 타지에 계신 분들을 촬영하다 보니 기존의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장소, 다른 배경에서 프로그램 녹화가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녹화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지역 내에서도 주제나 패널에 맞게 한 번씩 스튜디오가 아닌 장소에서 녹화가 이루어진다면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선희 부위원장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담은 신년을 맞아 짧은 임기의 두 달을 남긴 채 전체 7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중심으로 했다. 핵심은 민생입법에 관한 국회 본연의 업무와 민생뉴딜을 통한 지역발전 균형화, 보궐선거 서울, 부산 시장을 통해 다음 해 지자체장,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승리를 준비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었다. 광주, 전남지역 민심을 통한 전국 주도권 유도와 입법 활동을 통한 충실한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새해 첫 방송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본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듣는다 편은 변호사에서 출발하여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비교적 간단한 프로필이어서 익히 시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만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에 궁금증을 낳게 하였다. 광주와 5.18의거는 사회적인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아직 한 번도 못 와봤다는 건 바쁘다는 이유가 좀 난색스러웠다. 격주로 당 대표와 최근 대선 지지율에 따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팩트적 요소에 충실하게 비교검증 하도록 활동 사항을 자료로 많이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최영태 위원장 : -프로그램 내용에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프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침 시간의 특성상 토론 프로그램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문제 중 쟁점이 되는 주제를 더 많이 발굴하여 토론하는 성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방영 시간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프로그램 개편과정에서 시간이 앞당겨져 7시 10분 전후에 방영되는데 일요일 시간으로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 김요수 위원 : -<건축의 시간> 7부 <지루함과 센세이션> 편을 시청했다. 호기심을 주고 생동감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눈길을 못 떼게 하는 촬영도 좋았다. 짧은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양념인 듯하면서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메인요리이기도 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발음으로 해준 설명 또한 발상을 전환하는데 큰 몫을 했다. 도시는 건축으로 기억된다는데, 뷰 맛집, 사진 명소, 도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광주도 가질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다가왔다. 건축

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건축 관계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특히 도시설계 입안자들은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이다. 다시 보게 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피곤한 건축물이 아니라 행복한 건축물을 이용하고 싶다.

○ 김태진 위원 :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친애하는 나의 도시>, <건축의 시간>, <핑크피쉬> 등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건축의 시간>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했다가 프로그램에 푹 빠져들어 계속 시청을 하게 됐다. 코로나 상황에도 유익한 프로그램 및 뉴스를 제작해주시는 MBC 제작진분들께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시청자와 만나는 플랫폼들도 전체적으로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MBC의 시청률이나 신뢰도가 올라오는 건 관계자분들의 이런 노력이 조금씩 쌓여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 김형순 위원 : -<건축의 시간>에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 것 같다.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 준 재미있고 품격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고 붕어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안도 제시되어 참 좋았다. 특히 광주는 많은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덤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여기는 시청자들에게 여행의 재미까지 더해주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이 매우 좋았다.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생각을 깨우쳐 주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 이묘숙 위원 : -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을 흥미 있고 재미있게 시청하게 되었다. 해외 로케까지 진행되어 각 도시와 건축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도시의 건축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이제와는 다른 형태의 건축이 주는 생경함이 이후 대표건축물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즉 센세이션한 건축물이 주는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마치 새로운 건축양식이 아니면 지루하고 센세이션한 건축만이 우수한 건축이라는 의미로 이해될까 하는 작은 염려가 있었다. 전반적인 시청 소감은 '센세이션 건축의 파워'로 도시가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도시의 건축 이야기로 느꼈으며 답답한 막대 건축의 회색 도시에서 지루함을 벗어나 잠시 즐거운 시각 나들이었던 것 같다.

○ 이칠우 위원 : -<건축의 시간>은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먼저 7부까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체적인 기획의도가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점이다. 건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전체를 통해 우리가 명확히 해야될 목적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펜데믹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불쑥 코로나19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본래의 기획의도와는 멀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정밀함에 대한 아쉬움이다. 예를 들어 건축에 있어서 이상적인 공간배치는 무엇일까? 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비교설명을 하였다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너무 감성적인 면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옛 건물의 재활용에 있어서도 가장 효

과적인 보존과 재활용 방법을 좋은 예를 들어 좀 더 건축학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 언급하고 싶은 한가지는 최근 우리 주변의 트랜드이기도 하나 편안하고 아늑한 건축의 분위기가 모두 카페 스타일의 건축환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작은 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반드시 카페 형식으로만 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참조화면으로 보여주는 영상들 중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화면이 빨리 바뀌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은 자막을 이용하여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이 있는 장소 등을 간단히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남자 나레이터가 갑자기 여성 나레이터로 바뀌는 점에서는 전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방영을 준비 중인 8부작이 매우 기대된다.

○ 임철원 위원 : -앞에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욕심, 바람이 있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광주가 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축의 시간>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에 맞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담는 건축물이 바뀌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듯한 경제성 위주의 단순하고 유사한 건축물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진정한 가치인 인간 중심적이고 역사와 추억을 담고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멋진 경관을 만들어 도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미래 건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좋은 건축물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한 폭넓은 대안이 가슴으로 와 닿았다. 새로운 건축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의 사례를 다양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광주MBC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건축물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고 창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데 대해 놀라움과 자긍심이 느껴지는 품격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이 향후 대한민국 건축문화에 다양성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광주의 미래 도시상을 진지하게 다시 그리는 참신한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8부작인 <건축의 시간>이 7회까지 방영되었다.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12월 31일 방영된 “양림 이야기”는 7회분 프로그램인지 궁금하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건축의 시간>과 유사하고 또 7회분이 방영될 시간에 방영되어 <건축의 시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궁금했다. 1회에서 “문화전당”에 관한 내용이, 4회에서 “비아동사무소의 변천사”가, 5회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내용이 일부 소개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시는 작년 말에 “광주건축헌장”을 발표했다. 아파트 회색 도시와 무질서한 고층빌딩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 김형순 위원 : -집짓기 프로그램이 많다. 싼 빈집을 사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디자이너가 빈집을 개조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프로그램도 있다. 건축 리모델링, 건축 개념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건 광주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해도 두고두고 트렌드가 될 것이다.

○ 강부원 위원 : -1월 18일 <오매 전라도>의 코로나 백신의 확보내용, 종류, 접종패턴 등을 비교해 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 정말 유용했습니다. 백신을 고를 수 없고, 접종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완치자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ox퀴즈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고미아 위원 : -유튜브의 콘텐츠들은 어쩌면 전문 방송인과 비전문가들의 콜라보로 만들어지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보다 더 강해질 미디어 채널 유튜브 중에 눈에 보이는 콘텐츠가 보였다. 바로 <한 평의 삶>이라는 콘텐츠다. 현재까지 18개 정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는 영상 안에서는 한 평이라는 젊은층이라는 모습도 또는 세계에서의 가장 기본 삶에 대한 비교도 이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도 엿볼 수 있어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콘텐츠라는 생각으로 유심히 보게 되었다. 앞으로 방송이라는 채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바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정보의 채널이자 또는 학습 또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콘텐츠의 가치만이 눈에 들어왔던 유튜브용 콘텐츠들이 더 많은 관심과 기획의도를 가지고 재미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어느새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즐겼던 것들을 새로운 온라인에서 즐기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MBC 유튜브 채널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 김요수 위원 : -어느 날, 우연히 '전설의 타이거즈'가 유튜브에 떴다. 전라도 사람에게는 추억을, 야구 매니아에게는 기록을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기획이다. 타깃이 분명하고, 흥미를 준다. 타이거즈 전설들의 이름들이 정답게 들린다. 야구 전설들의 젊은 시절의 투구폼, 타격폼도 볼 수 있고, 그때의 유니폼도 볼 수 있다. 그때의 경기장 현장 분위기, 중계방송의 목소리도 재밌다. 타이거즈 우승의 감동이 찌릿하니 다가오기도 한다. 새로운 제작도 중요하지만, 추억과 기록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본보기다.

○ 류한호 위원 : -광주MBC 홈페이지 검색이 낡은 기능이다. 예를 들면 시청자위원회라고 단어를 입력하면 2013년, 2015년 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조건, 정확도, 시간순으로. 검색기능을 해줘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가 어쩌면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인공지능 산업, AI산업, 광주형 일자리, 미래형 자동차 문제 등 지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광주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선도하려 한다. 이 사업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초기 단계부터 차질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긴장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조숙경 위원 :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1년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없었다. 여쭤보고 싶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조회수가 너무 적었다. 조회수가 이렇게 적나? 5.18 관련해서 전국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최영태 위원장 :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청자위원회도 감성적인 것, 문화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건축의 시간 호평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건축의 시간>은 원래 기획한 제목이 <건축혁명>이었다. 코로나로 해외 취재를 못 가다보니 국내편으로 제작하게 됐다. 그럼에도 잘 만들어냈다. 김형순 위원 말씀하셨듯이 요즘 트렌드와 맞아 좋은 평가

를 해주시는 것 같다. 후속작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작품은 충분한 제작비가 들어야 한다. 작품의 품질은 제작비의 투여와 비례한다. 올해 말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내레이션이 왜 2명이냐 했는데 각 부마다 색깔이 달라서 남녀 내레이터를 썼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서울에서 <트로트의 민족>을 일요일에 재방송을 하는데 광고료 등이 있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7시로 옮겼다. 다른 상대사에는 평일 저녁에도 하는데 좋은 시간대는 아니다. 일요일 오전 8시대는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기에 형성된 시청층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 윤근수 취재부장 : -고견에 감사드린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노동문제, 도시계획, 지방대학 위기 등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보도를 하겠다. 이묘숙 위원 지적해주신 부분은 시청자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대권주자 대담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후보들의 면면이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고미아 위원 말씀하신 <한평의 삶>은 구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제작지원을 받아서 방송 다큐로도 2편을 방송했다. 처음 기획할 때 디지털 콘텐츠로 기획했던 거여서 계속 만들어서 클립으로 올리고 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시즌2를 기획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담으려는 콘텐츠다. 전설의 타이거즈는 작년 상반기부터 해왔다. 채널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올 초 개설했다.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들려고 한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홈페이지 검색 기능은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늦어지고 있는 점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다. 이묘숙 위원 말씀하신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의 내용이 같다는 부분은 기자 수가 여섯 명이다. 타사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고 열악하다. 그럼에도 로컬뉴스를 한정해서 보면 더블로 시청률이 앞서고 있기도 하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 며칠 사이에는 <뉴스투데이> 시청률이 잘 나오고 그런다. <건축의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애초 계획이 어그러졌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제기를 했으니 광주의 도시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토론회가 됐든, 도시의 건축을 담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광주시에서 우리가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계획에 대해 하면 좋을 것이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다. 꼭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